

『於于野談』의 ‘科擧談’ 양상과 특징*

김경**

【목 차】

1. 들어가며
2. 『於于野談』의 과거담 양상
3. 『於于野談』의 과거담 특징
4.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於于野談』의 ‘科擧談’ 양상을 확인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어우야담』에 담긴 과거담을 3가지로 유형화하여 특징점을 개진하였다.

첫째, 名士의 文才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과장에서 작성한 科文을 활용하였다. 이들 일화에서는 꾸며낸 이야기나 풍자적 성격보다는 사실적인 면모가 강하였다. 더욱이 언급된 작품은 모두 시험장에서 작성된 科文이며 이를 통해 시험정보나 試題와 같은 구체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중종·명종 연간의 신분제에 따른 응시 제한과 관련된 일화에서는 유몽인의 비판적 시각이 뚜렷하였다. 또한 당대 분위기를 서술함으로써 이 시기의 신분제가 混淆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셋째, 응시문화와 관련된 일화에서는 풍자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당대 시험과 관련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중종·선조 연간의 講經과 收券과 같은 문제를 통해 시험장 풍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여타 야담집의 과거담과 비교했을 때 과거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성과 함께 진실성이 강조되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 柳夢寅, 於于野談, 野談, 科擧談, 事實性, 眞實性.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644)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1. 들어가며

野談은 그 시대에 꿈꾸는 욕망을 곡진히 담아낸다. 야담에서 그 욕망은 ‘致富談’과 ‘出世談’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출세담은 양반층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급제와 관련된 일화이고, 또 하나인 치부담은 주로 중하층 부의 축적하는 과정을 담은 일화이다.

출세담의 주요 내용인 科擧는 시행에서의 全國性과 頻煩性으로 인해 사회적 과급력은 절대적이었다.¹⁾ 따라서 조선시대 과거에 대한 자료들은 넘쳐날 만큼 풍부하며 공적 기록물이나 사적 기록물 등 기록 주체들도 다양하다.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중복되거나 소략하다는 문제로 인해 과거의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은 상세하면서도 과정에 대한 기록은 그렇지 못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과거 시험의 준비와 응시에 대한 문화적 배경과 그 이해도는 높지 않다.²⁾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일기나 필기·야담과 같은 자료에 주목하고 있다.³⁾ 물론 대다수 야담에서 과거시험은 당대 배경으로 언급되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지점이 있지만, 당대 사회 분위기 및 개인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黃渭周, 「한국한문학 연구의 몇 가지 과제」, 『大東漢文學』 22, 大東漢文學會, 2005, 485면.

2) 김경, 「事實性으로 바라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2020, 69면.

3) 전경목, 「조선 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 응시-권상일의 『淸臺日記』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정순후,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최은주,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영남지방 지식인과 과거 시험의 형상화」, 『대동한문화』 38, 대동한문화회, 2013; 차미희,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문과 경상도 향시」, 『한국사학보』 53, 고려사학회, 2013; 권기성, 「야담에 나타난 조선 후기 과거문제의 현실과 대안적 상상력-법과 정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7, 한국고소설학회, 2019; 이병직, 「박소촌화 所載 과거담의 특징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64, 한국문학회, 2013; 임완혁, 「서사문 속의 과거 이야기」, 『대동한문화』 38, 대동한문화회, 2013.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柳夢寅(1559~1623)의 『於于野談』 또한 소재나 주제면에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⁴⁾ 하지만 과거와 관련된 내용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진하다. 『어우야담』은 여러 이본이 현전하는데, 대략 558개 일화 중에서 과거와 관련된 일화는 62개이다.⁵⁾ 분량으로 보자면 『어우야담』에서 절대적이라 할 수 없지만, 과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제도, 과문의 형식, 응시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들을 담아내고 있다. 더욱이 과거와 관련된 일화에서는 이야기보다 기록으로서의 성격이 우세하다.⁶⁾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우야담』 소재 과거를 대상으로 한 일화를 통해 당대 과거에 대한 실상과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출세담을 ‘과거담’으로 명명하여 과거의 측면에 집중하고자 한다. 다만, 허구성이 두드러지는 일화나 과거가 단순 서사에 보조적인

-
- 4) 일례로 도깨비, 뱀, 인육, 역병과 같은 소재나 주제별 연구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정솔미, 「조선후기 ‘서울 도깨비 이야기’의 특징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65, 한국구비문학학회, 2022; 김문희, 「고전소설 속 인육(人肉)모티프의 상상력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53, 한국고소설학회, 2022; 이주영, 「조선후기 문학의 역병(疫病) 재난과 대응 양상」, 『열상고전연구』 77, 열상고전연구회, 2022; 이현정, 「제주도 나주 출자 뱀 신앙 연원 일고찰: 조선조 나주목 일대 용신 신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5, 국문학회, 2022; 배아영, 「정령의 문화적 형상화 과정」, 『인문과예술』 11, 인문예술학회, 2021; 박수진, 「조선 후기 야담집에 나타난 역병(疫病)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어우야담』과 『천예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74, 한국언어문화학회, 2021.
- 5) 『어우야담』은 만종재본, 고려대본, 청구패설본, 도남본, 이수봉본, 동양문고본 등 40여 종이다. 이본에 대한 교감과 교열, 그리고 정본화 작업을 통해 만종재본이 가장 善本으로 평가되고 있다.(신익철·이형대, 「『어우야담』의 비판적 정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9, 한국한문학회, 2002; 정한국, 『정본 한국 야담전집』 1, 보고사, 2021) 한편 신익철은 현재까지 확인된 만종재본에 없는 일화인 38개를 ‘보유판’로 묶어 소개하였는데, 이 일화들에서 과거와 관련된 것은 4개가 확인된다.(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희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본고에서는 편집 체제는 신익철 외(2006)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 6) 유몽인은 『어우야담』을 저술한 감회를 읊은 <詠懷題於于野譚>에서 『춘추』의 정신과 『장자』의 기법으로 기술하고자 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과거담의 경우 春秋直筆의 방식이 확인된다.

장치로 활용되는 일화에 대해서는 배제하기보다 당대 욕망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이 투영된 것으로 보고 과거담에 포함하기로 한다. 즉 포괄적인 의미에서 과거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기록이나 기사와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일화의 출처나 소재원을 통해 사실성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2. 『於于野談』의 과거담 양상

『어우야담』 소재 과거담에는 유몽인 자신의 시선이 반영된 일화에 서부터 이전 문헌이나 전술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만종재본을 기준으로 관련 인물 및 정보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어우야담』에서의 과거담 양상

연번	편명	작품	등장인물	내용 및 정보	분류
1	人倫	3	李忠綽	사마시-원점제도	능력
2		17	金汝岫	문과 알성시	능력
3		25	魯認, 柳汝宏	문과 초시	능력
4		30	金麟厚, 李荇	七夕製에서 賦	능력, 科文
5		60	潘碩桴	신분제(노비 응시)	능력, 과거제도
6		77	盧植	과거 공부	응시문화
7	宗教	97	南宮斗	辭賦, 성균관 과장	능력, 科文
8		116	成宗, 崔恒	壯元柏의 유래	어원
9		117	鄭彦慤, 柳忠寬	별시초시, 책문	神異
10		139	申叔舟	알성시	神異
11		140	全穎達	신녀에게 먹을 받음	神異
12		161	柳熙緒, 申熟	사마시	응시문화, 神異
13		162	柳夢寅	사마시, 문과	神異
14		164	李忠義, 李麗(仁祥), 元戎	무과	吉夢
15		182	朴忠元, 李浚慶, 鄭士龍	策文(초고를 楷書로 재작성)	科文
16		187	張應斗	科擧를 일삼지 않음	과거제도 비판

17	社會	193	李士浩.	1611년 생원시	과거제도 비판
18		199	李穡	科文	과거제도 비판
19		202	金宗直, 金守溫	試卷 채집, <白龍賦>	능력
20		208	洪鸞祥, 洪履祥, 李山海	月課, <治蠶酒>	능력
21		213	崔仁範	庭試, <濟川舟楫賦>	능력
22		220	河應臨	능력에 비해 요절	능력
23		238	閔孝悅, 閔泮	문과, 사미시, 正科	능력
24		252	金駟孫	東堂試, 종장 試題 策文	능력
25		260	沈義, 沈貞	형 심정에게 어리석은 제한 심의	능력
26		261	柳夢寅의 누이, 宣祖	<鄭衆謝拜軍司馬> 시제로 삼음	능력
27		276	李濟臣·金行·金德淵	별시, 『焚舟楫試策』	능력, 응시문화
28		291	金雲鸞	진사시	육망실현
29		297	金球	생원시, 진사시	육망실현, 능력
30		305	楊禮壽	醫科	능력
31		331	鄭惟吉	署押, 서얼 응시 불허	과거제도 비판
32		332	柳根	六經義, 四書疑	科文, 비판
33		333	安自裕, 黃落, 趙挺	진사시의 賦, 詩	응시문화
34		334	金天齡	<三都賦>	능력
35		335	鄭惟吉	알성시, 表文	능력
36		336	鄭瓚과 朴忠侃	試題 변경	능력, 비판
37		337	柳永忠	試券 작성	응시문화
38		338	柳夢寅, 洪汝明, 李廷龜	채집	神異
39		339	宣祖, 柳夢寅, 尹紘, 李德馨, 李好閔	論, 시관의 채집, 1602년	과거제도
40		340	金弘度, 姜克誠	丙年の 重試科, 對策	응시문화 비판
41		341	李嶸, 李好閔	진사 초시, 전시(表, 論, 策)	응시문화
42		342	姜文祐, 車軾, 安海	서얼 응시 제한	과거제도 비판
43		343	鄭蕃	알성시, 서얼 응시 제한	과거제도 비판
44		344	朴光佑	新來 풍습	풍습
45		345	鄭芝衍, 朴應男	만년 합격	응시문화
46		346	申應渠	시권 제출, 講席	응시문화
47		347	南應雲, 明宗	문무 관리 시험	능력, 제도

48		348	宣祖, 光海君	1570년, 1593년 武科의 문란.	과거제도 비판
49		349	金溫	만년 합격	응시문화
50		350	羅級, 鄭士信, 金球, 朴大立	講試의 부담감	응시문화
51		357	愼思獻	생원·진사시 齊馬首會	풍습
52		369	黃璘	論策	능력
53		382	盧守愼	讀書堂과 한미한 선비의 대우	풍습
54		383	金弘度	日課, 對策	능력, 科文
55		387		軍籍, 敬差官의 향교 講經 시험	과거제도, 풍습
56		390	李卿雲, 朴燁	시관과 지방관의 싸움	풍습
57		439	趙胤熙	답안지 숨기기	부정행위
58		453	鄭蕃, 俞涵	알성시- '정변의 畡才人' 應講 - '유합의 빛갈 좋은 말'	어원
59	補遺	524	李瑞龍	무과	능력
60		526	河景淸	진사시, 무과	능력
61		530		정덕 연간(1506~1521), 보쌈	응시문화
62		549	林芑	何忠의 對策文	응시문화

『어우야담』의 만종재본은 <人倫>, <宗教>, <學藝>, <事會>, <萬物>인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人倫>에서 과거담은 6편에 등장하는데 모두 인물의 능력을 부각하기 위한 보조적 성격에 해당한다. 다만, 30화에서는 金麟厚(1510~1560)가 李荇(1478~1534)이 대제학으로 있을 때 수석을 차지한 일화가 등장하며, 60화는 潘碩桴이 노비임에도 국법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하였고 급제하여 재상의 반열에 올라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었다는 일화로 과거와 관련된 구체성이 확인된다.

<宗教>에서 과거담은 8편이다. <종교>라는 편명에 확인할 수 있듯이, 야담류에서 흔히 보이는 신선술, 꿈과 해몽, 귀신, 신녀와 같은 神異의 일화들이며, 이러한 사건의 흐름에서 과거는 대부분 신이함을 부각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하지만 과거 문화사와 관련하여 두 개의 일화가 주목된다. 116화에서는 성균관 서쪽 뜰에 있는 잣나무를

‘壯元柏’이라 하는 그 유래를 소개하고 있고, 161화는 과거에 응시하는 이들이 ‘落’을 쓰기 꺼리는 것과 고양이가 앞을 가로질러 가면 합격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⁷⁾ 이를 통해 급제라는 욕망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學藝>에서 과거담은 16편이다. 이 편에서 과거담의 특징은 구체성에 있다. 과거담에 名士가 등장하는 것은 보편적인 양상이지만, 시제 및 시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작품과 채점방식 등에서 세밀한 기록이 확인된다. 金宗直의 <白龍賦>는 시험장에서 작성된 작품이고, ‘鄭衆謝拜軍司馬’는 시제이다. 또한 276화에서는 李濟臣·金行·金德淵이 지은 책문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焚舟榻試策』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유행했다는 일화도 보인다.

<事會>에서 과거담은 28편에 이르는데, 『어우야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다. 그 안에 담긴 내용 또한 과거의 관련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과거 응시법, 과문 학습법, 시관의 채점방식, 서얼 과거 금지법, 새로 급제하는 이들이 新來 풍습, 시험장에서 예법, 무과의 문란함, 강경에 대한 부담, 생원·진사시의 합격자들의 齊馬首會, 지방관과 파견된 시관의 다툼, 시험 부정행위, 과거와 관련 속담의 유래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서얼에 대한 과거에 응시가 세 개의 일화에서 확인되듯이 당대 신분제 混淆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萬物>에서는 과거와 관련된 일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여러 이본에서 각기 수록된 일화 중에 4편이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 이 중 3편은 서사의 보조장치로서 과거가 언급되는 것에 불과하고, 549편의 내용은 對策文과 관련된 일화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과거담은 <학예>와 <사회>에 집중되어 있으

7) 柳夢寅, <人倫>, 『於野談』권1. “頃者, 我國儒士, 應擧者, 恒言惡用落字.”

며, 과거라는 측면에서도 구체적이며 당대 시대적 배경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종교>에서 과거는 神異한 이야기와 연계되며 당대 분 위기를 가늠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주제 측면에서 『어우야담』의 과거담은 어떠한 양상인가?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주제별 과거담 양상

대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해당작품(번호)
名士文才	응시자 능력	과문 작성	30, 97, 202, 213, 220, 260, 334, 335, 337, 338, 341, 369, 383, 524, 526
		인물됨	3, 17, 25, 297
		試題 변별	252, 261, 336
		불응시	187, 193, 238
	채점관 능력	試官의 채점	202, 208, 339
應試文化	입격자 풍습	新來	344
		齊馬首會	357
	응시장의 예법	강경시 부담감	350
		시권 제출	346
	숙답 및 어원	숙담화와 어원	116, 161, 453
	神異	꿈, 신녀	117, 139, 140, 162
	응시 준비	작문과 참고서	276, 341, 549
		시험 준비	77, 382
	합격사례	급제의 실현	164, 291, 345, 349
制度批判	응시 금지	노비 응시	60
		서얼 응시	331, 342, 343, 453
	무과 문란	무관 문란	348
	부정행위	참고서 유입	439
	사례비판 (자기의견)	六經義와 四書疑	332
		李穡 비판	199
		대책문	182
	시관 파견	軍籍	387
		경시관	390

과거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은 25편이 과거에 합격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리고 응시하지 않는 이들의 文才이다. 즉 능력을 방증하는 장치로써 과거가 등장한다. 다음으로 주된 양상은 과거 응시문화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화가 11편이고, 여기에 풍습 및 어원이 7편 그리고 神異한 일화 7편을 더한다면 25편에 이른다. 출세를 위한 절박함과 출세를 통해 立身을 실현하고자 사대부층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된 양상은 과거 제도 비판에 대한 일화가 11편이다. 과거 제도 비판에서는 60, 342, 343, 453화가 노비와 서얼의 과거 응시에 관한 것이다. 이는 신분제의 混淆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반영된 것이며, 유몽인은 옹호 입장을 文面에 드러내고 있다.

3. 『於于野談』의 과거담 특징

『어우야담』에는 15세기 후반~17세기 초반 사이의 과거와 관련된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명종·중종·선조·광해군 연간의 과거 시험과 그에 따른 당대 문화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전술 하였던 주제에 따른 3가지 분류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얼마만큼 과거와 관련된 당대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1) 科文을 활용한 文才 증명

『어우야담』은 筆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야담으로서 변모된 성취를 이루어냈지만, 초기 야담에서 지니는 필기의 성격이 우세하다.⁸⁾ 이러한 면모는 2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화에 등장하는 이가 실제 인물이며, 생몰년을 알 수 없는 인물보다 대부분 당대 명사들이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능력을

8) 신익철, 『『어우야담』의 서사방식과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한국학』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9면; 이채경, 『『어우야담』에 담긴 지적경험과 서사장치』, 『대동한문학』 66, 대동한문학회, 2021, 127면.

증명하는 도구로 과거라는 제도가 활용되는데, 무엇보다 상당수 일화의 내용이 그들의 科文 작성 능력에 집중되어 있다.

河西선생 金麟厚는 호남 사람이다. 18~19세 한양에 왔는데, 이때 절기가 七夕이어서 성균관[泮宮]에서 선비들을 시험했다. 容齋 李荇이 대제학으로, ‘칠석’을 제목으로 賦를 짓게 하자 하서가 二上의 점수로 수석을 차지했다. 용재는 하서의 인물과 문장이 모두 주옥같아 기특하게 여겼다. 다만 시골 출신에 어린 선비가 문장이 일찍 높은 경지에 이른 게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를 반궁에 머물게 하고 일곱 번이나 출제하여 시험을 보게 했는데 그중 <鹽賦>와 <盈虛賦>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워 전한다. (후략)⁹⁾

인용한 글은 金麟厚(1510~1560)가 李荇(1478~1534)이 대제학으로 있을 때 七夕製에서 賦를 지어 二上의 성적으로 수석을 차지한 내용이다. 이 일화는 『芝峯類說』과 『燃藜室記述』에도 전한다.¹⁰⁾ 또한 『경종실록』에 의하면 1723년 중국 사신에게 우리나라의 詩賦를 보여 줄 때 김인후의 <칠석부>가 거론될 만큼 후대에까지 회자되었다고 한다.¹¹⁾

『중종실록』에 의하면 이행은 1519년 12월에 제수되어 1520년에 대제학이 되었고,¹²⁾ 김인후의 <年譜>에 의하면 19세에 이행이 문형으로 있을 때 칠석제에서 居魁가 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¹³⁾ 이들

9) 柳夢寅, <人倫>, 『於野談』권1. “河西先生金麟厚, 湖南人也. 年十八九, 來京師, 時七夕試士泮宮, 容齋李荇爲大提學, 賦以七夕爲題, 河西入二上格爲魁. 容齋奇之, 以爲人與辭俱玉, 但遐鄉弱冠人, 文章早詣如許, 頗疑其假手他人, 俾居之泮宮, 出七題以試之, 其中鹽賦盈虛賦是也, 至今爲東人傳誦. (後略)”

10) 李肯翊, <仁宗朝故事本末·仁宗朝名臣>, 『燃藜室記述』권9. “形容端正, 氣宇宏深, 文章富瞻. 少時, 館課試七夕賦, 第一名聲.” 李晬光, <性行部·恬退>, 『芝峯類說』권15. “金河西麟厚長城人, 文章富瞻. 少時館課七夕賦第一, 名聲籍甚.”

11) 『경종실록』, 경종 3년 계묘(1723) 1월 24일 기사.

12) 『중종실록』권37, 중종 14년 12월 25일 기사. “李荇上來, 則【荇前見貶在外, 今拜大提學故云.】使之變其文體可也.” 『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 1월 2일 기사. “且李荇, 今爲大提學, 可堪爲副提學者, 無其人.”

기록에서 시기가 일치하므로 이 일화에서 칠석제는 1519~1520년에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칠석제는 節日製의 하나인 七日製로 7월 7일인 절기에 시행되는데, 이 시험은 성균관 유생들의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 수석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문과 복시 혹은 전시에 직부, 혹은 문과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하였다.¹⁴⁾ 다만, 현재까지 칠일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었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록에서 확인되는 최초 기록은 1605년(선조 38) 7월 11이다. 또한 『효종실록』에 의하면 1653년인 이때에도 시행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¹⁵⁾ 이처럼 종종 연간에 칠석제가 시행되었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이 일화를 통해 칠석제의 시행 여부와 함께 칠석제가 성균관 유생뿐만 아니라 지방 유생도 참여하였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試製는 『續大典』에 의하면 對策·表·箋·詔·制·論·賦·箴·銘·頌 가운데서 1편을 작성한다고 되었는데, 이 일화에서는 賦가 출제되었고, 현재까지 전하는 김인후의 <칠석부>가 애초 ‘칠석제에서 지어진 科賦’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¹⁶⁾

물론 이 일화가 사적 자료와 같이 사실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일화를 통해서 칠석제의 시행 여부와 <칠석부>가 科賦임을 확인할 수 있다.

(前略) 金駟孫이 그의 처형제들과 東堂試에 응시하였는데, 初場에서 술 취해 자다가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돌아왔고, 中場에서도 취해 자다가 또 제출

13) 金麟厚, <年譜>, 『河西全集附錄』 권3. “七年戊子, 先生十九歲. 是歲, 先生來京師. 時李容齋荇, 爲文衡, 七夕, 試士泮宮, 先生就試居魁, 而試券膾炙人口.”

14) 원창에 外5,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242면.

15) 『효종실록』 권10, 효종 4년 3월 3일 기사. “故事, 三月三日及七夕·九日, 例有課試儒生之規, 而政府·館閣有故久廢, 故有特遣之舉.”

16) 이 글은 『河西全集』 권1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화에서 등장하는 <鹽賦>도 함께 확인된다.

하지 않고 돌아왔다. 종장 때가 되자 이전 답안지를 모두 붙여 수십 폭을 이어 시험장에 들어갔다. 시험관이 策文 제목을 <中興>으로 삼아 宋나라 高宗을 역대 중흥한 임금에다 놓자, 김일손이 그 시제를 거두어 말고서는 시험관에 앞에 나아가 말했다. “송나라 고종은 한 귀퉁이에서 안일함만 도모하면서 어버이를 잊고 원수들과 원한을 풀어 개되지 같은 자들에게 화친을 구걸하였으니 어찌 은나라 高宗[武丁]·주나라 宣王과 함께 中興한 임금에 나란히 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잡아 주십시오.” 시험관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그의 말대로 문제를 고쳐 썼다. (中略) 방을 내거는 날이 되자 사람을 시켜 보고 오라고 하면서, 김일손은 그에게 “너는 가서 맨 위의 첫째번 이름만 보고 오너라. 그것이 내 이름이 아니거든 즉시 돌아올 것이요, 더는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방을 보니 김일손이 첫째 번으로 올라 있었다.¹⁷⁾

인용한 글에서는 구체적인 試題가 동원된다. 등장인물인 金駟孫(1464~1498)은 <弔義帝文>과 소릉 복위 상소 등의 사실로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科試와 관련된 정보는 『國朝文科榜目』과 실록, 行狀 등 다양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486년 생원시, 진사시, 그리고 그해 문과 甲科과 2위로 합격하였다.¹⁸⁾ 다만 문과의 시제는 ‘殿策’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일손의 연보인 『濯纓年譜』(장서각소장, 上, 14면)에 의하면 “冬十月丙戌, 赴覆試對中興策中第一名.”이라 하여 시험문제가 <中興策>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이 글은 『濯纓集』권5에 <中興對策>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¹⁹⁾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 본다면

17) 柳夢寅, <學藝>, 『於野談』권1. “(前略) 及其與妻兄弟, 同赴東堂試, 初場醉臥, 曳白而歸, 中場又就眠, 曳白而歸, 及終場盡粘三場試紙, 連數十幅而入. 考官問策, 以中興爲目, 而宋高宗齒於歷代之中興, 駟孫卷其題, 入考官前曰, “宋高宗偷安一隅, 亡親釋怨, 乞和於大羊, 豈與恩宗周宣, 並列於中興之主? 請改之.” 考官大慚, 改下文字, 如其言.” (中略) 及掛榜之日, 使人往觀之, 駟孫謂之曰, “汝往觀比上頭第一名, 無我名卽還, 勿復觀之.” 往觀之, 果第一矣.”

18) 黃宗海, <金濯纓行狀>, 『朽淺集』권8. “丙午, 中進士, 其年十月, 登第.” 생원시의 경우 실록에서도 확인된다. 『성종실록』 195권, 성종 17년 9월 15일 정사 2번째 기사.

이 일화의 동당시는 1486년의 식년시 문과 종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과 종장의 시제는 ‘中興’이었고, 이때 지어진 글이 <中興策> 혹은 <中興對策>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후대 趙綱(1586~1669)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²⁰⁾

이 일화 역시 김일손의 文才에 대한 능력을 부각하기 위해 과거시험이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시제를 수정하는 장면은 시험장이라는 엄중하고 긴장감이 팽배하는 배경에서 김일손의 글에 대한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부분이다. 또한 사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국조방목』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시제를 이 일화를 통해 알 수가 있고, 김일손의 <중흥책>이 이러한 배경에서 지어진 작품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같이 『어우야담』에는 科場을 배경으로 지어진 작품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202화에서는 金宗直의 <白龍賦>, 208화에서는 洪鸞祥의 <治蠱酒>, 213화에서는 崔仁範의 <濟川舟楫賦> 등도 인물의 文才를 부각하기 위해 과장에서 지어진 작품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양상이다. 대부분의 야담에서는 당대 유명인사를 등장시켜 있음직한 이야기로 구현한다. 『어우야담』에서도 야담류의 경향성에 포함되는 일화도 있지만, 이야기로써 성격보다는 그 인물의 능력을 부각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과거시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이때 사실성을 수반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험과 시제를 활용하였다는 점도 『어우야담』의 주된 양상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 『택영연보』는 1548년 金大有가 편집한 것을 1874년에 간행한 것으로 현재 장서각(K2-853)에 소장되어 있다.

20) 趙綱, <節孝先生孝門銘石說>, 『龍洲遺稿』권12. “成廟朝闡大對, 世所稱中興策者, 其文汪洋放肆, 若注江河.”

2) 신분제 混淆에 따른 과거 비판

조선 시대는 신분사회로 출신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 시초는 1415년 6월 徐選(1367~1433)의 논의로 시작되어 1485년 『經國大典』에 명시화되었다. 이후 대체적으로는 16세기 중반까지 서얼에 대한 금지가 법제적으로 더욱 엄격히 강화되었고, 17세기 초반 이후 서얼 許通 논쟁으로 점차 사회적 편견이 개선되었다.²¹⁾ 이러한 사실은 『국조방목』에 서얼 출신 문과 급제자에서도 확인되는데, 성종(1), 명종(1), 선조(3), 광해군(10), 인조(19), 효종(6), 현종(9), 숙종(47), 경종(4), 영조(39), 정조(1)이다.²²⁾

『어우야담』에서도 노비와 서얼 출신이 과거에 응시한 일화가 확인된다. 또한 331화에서는 “과거에 응시하는 법은 혹은, 四祖 가운데 서얼이 있거나, 혹은 자신이 公私의 천인이거나, 四館에서 停擧를 당했거나, 이름이 罪籍에 올라 있거나, 혹은 죄를 지어 變姓名을 했거나 하면 과거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應擧之法, 或四祖有庶孽, 或有身爲公私賤, 或四館停擧, 或名有罪籍, 或作罪變姓名, 不許赴.]”고 하여, 유몽인이 인식하는 당대 법 규정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 중에서 四祖 가운데 서얼이 있다면 그 후손은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1554년(명종9)에 발간한 『經國大典註解』의 <取才>에 “本典限品敍用條, 良妾子孫, 賤妾子孫, (···) 禮典諸科條註庶孽子孫, (···) 乃謂子子孫孫也.”라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즉 ‘서얼자손’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아들과 손자’가 아닌 ‘자자손손’으로 해석함으로써

21) 이성무, 『韓國의 科擧制度』, 한국학술정보(주), 2004, 218~219면; 박경남, 「崔鳴吉·崔錫鼎의 庶孽許通 상소와 지식인의 역할」, 『고전문학연구』 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84~85면 참조.

22) 숙종과 영조대 서얼출신 합격자가 많은 것은 서얼통정운동이 확산과 같은 표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재위기간, 과거시행시행수 등과 같은 요인도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손혜리, 「과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서얼가의 學知생성과 家學의 성립—昌寧成氏 桑谷公派의 경우—」, 『대동한문학』 38, 대동한학회, 2013, 178~180면 참조.

서얼들의 벼슬길은 영원히 막히게 되었다.²³⁾ 하지만 『명종실록』 명종 9년 8월 25일 기사에 의하면 서얼의 벼슬길 許通을 이번에 복구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처럼 명종 연간의 서얼 허통에 대한 기록은 즉위년인 1545년부터 확인되며 재위기간 동안 첨예한 논쟁이 이어졌다. 물론 조선후기와 같은 집단적인 논의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²⁴⁾

서얼 姜文祐[姜文佑]가 개명해 과거에 응시하면서 直講 車軾과 典籍 安海의 서명을 위조하여 찍었다. 안해가 言官에게 고하자 하니 차식이 만류하며 말했다. “강문우는 지난해에도 削科를 당했는데 지금 또 삭과하는 것은 좋지 못하오, 차라리 내가 죄를 받는 게 낫지, 차마 고발은 못하겠소.” 안해가 끝내 고발해서 삭과시키고 응시 자격을 정지시켰는데, 이듬해 안해는 눈병에 걸려 실명했다. 사람들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해서 그리된 것이라 했으니, 차식을 덕이 있고 안해를 야박한 인물로 여긴 것이다.²⁵⁾

인용한 글은 342화로 서얼 姜文祐(?~?)가 개명하여 車軾(1517~1575)과 安海(1504~?)의 서명을 위조하여 과거에 응시한 일화이다. 결국 안해의 고발로 인해 강문우는 削科를 당하였는데, 고발한 사람이 눈병이 걸렸고, 사람들이 인과응보로 여겼다는 내용이다.

우선 왕조실록을 보면, 1548(명종 3)년 10월 7일 기사에 應周라는 자가 이름을 文佑로 고치고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했는데, 이후 削去한 기록이 확인된다.²⁶⁾ 응주는 姜子順(1443~?)의 妾孫으로 바로 이 일화에

23) 박경남, 앞의 논문, 87면.

24) 구체적인 논의는 박경남(『16·17세기 庶孽 許通 上疏文 연구』, 『한국한문학회』 52, 한국한문학회, 2013)을 참고 바란다.

25) 柳夢寅, <事會>, 『於野談』 권4. “庶孽姜文祐, 改名應舉, 僞着直講車軾·典籍安海名署, 海欲告言官. 軾止之曰, “文祐往年削其科, 又今削之不祥, 吾寧受辜, 不忍發.” 海竟發之, 削其科, 錮其舉. 明年, 海目疾喪明, 人謂積不善之就, 德軾而薄海也.”

26) 『명종실록』 권8, 명종 3년 10월 7일 기사. “今者班城尉妾孫應周, 改名文佑, 又變其父之名, 濫入試場, 得參文科, 至爲駭愕. 請速削去治罪, 錄名之官, 并皆推治. 答曰, 如啓.”

등장하는 강문우이다. 이를 통해 342화의 시기적 배경은 1548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국조방목』에 의하면 강문우는 1558년(명종13) 8월 6일에 있었던 別試에 합격하였다. 『葵史』에서도 명종대 특별히 행해졌던 서얼 허용조치로 강문우가 별시에 합격하여 敎書權知가 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²⁷⁾ 이 시기 庶孽許通이 일시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尹元衡(?~1565) 및 그에 동조한 세력이 節目을 마련했기 때문이다.²⁸⁾ 이처럼 명종 연간에 서얼허통은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고, 그 실제적인 사례가 강문우의 응시이며, 이 일화는 이러한 시대를 배경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종종 연간에서도 확인된다.

343화에서는 서얼인 鄭蕃(?~?)이 알성사에서 장원 급제하였지만, 臺諫이 논의하여 削科된다. 그런데 고발한 대간의 아들이 죽게 되고, 유몽인은 이에 대해 재앙이 자손에게 미친 것이라 하였다.²⁹⁾

鄭蕃의 과거 응시 기록은 1523년(중종 18) 3월 27일 기사에서부터 확인된다. 그의 아버지는 본래 천인이었으나 면천되어 관직에 올랐고, 이 당시 정변은 새로 양인이 되었기에 과거에 응시하였다. 그런데 응시자의 명단인 錄名을 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었다. 중종은 4월 15일에 정변의 가계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8월 30일에는 아버가 면천하기 전에 태어났으므로, 과거시험 응시를 불허하게 되는 것으로 끝맺는다.

27) 『葵史』(장서각소장, K2-171)乾, 9~10면. “明宗二十一年, 丙寅…因庶類等陳疏, 特許良妾孫以下, 赴文武科, 有姜文祐者, 中別試, 爲敎書權知.”

28) 윤원형은 기생첩인 鄭蘭貞(?~1565)을 정경부인으로 삼게 되자 자신의 서술 자녀들을 위해 허통을 관철시켰고 沈連源·尙震·尹慨가 동조하였다. 『명종실록』권15, 명종 8년 10월 7일 기사. “庶孽不得許通, 雖曰祖宗朝成法, 國家愛惜人才, 不可不變而通之. 大概依三公議, 得良妾子則娶良妻, 至其孫, 賤妾子則娶良妻, 至其曾孫許通, 而勿敘顯職, 一家之內, 毋得凌嫡之事, 令禮曹詳盡磨鍊節目.”

29) 柳夢寅, <事會>, 『於野談』권4. “庶孽鄭蕃, 中謁聖及第, 狀頭唱榜, 臺諫論之, 削其科. 鄭蕃袍笏而出曰, “人之不善, 災必逮夫身及子孫. 言官之汰吾科者, 殃其及子孫乎!” 其臺諫有獨子, 明年死, 人皆曰, “天道好還, 甚可畏也.” 噫! 今陷附權臣者, 一敗, 非但如鄭蕃之才人, 亦多殃及其子孫, 尤可畏也.”

이러한 이유로 『국조방목』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 일화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무엇보다 鄭蕃의 억울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魚叔權(?~?)의 『稗官雜記』와 權應仁(?~?)의 『松溪漫錄』에서도 확인되는데, 먼저 삭과를 논의한 대간은 徐厚(?~?)라 기록되어 있다.³⁰⁾ 또한 전술한 3월 27일 기사에 의하면 정변이 지난번 과거에 응시하려고 거짓으로 徐厚와 李芻의 이름을 지금의 추천서에 해당하는 保單子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록을 정리하면 이 일화에서 정변은 지난 응시에서 처벌을 받았고 다시금 과거에 응시한 것인데, 마침 대간인 서후가 지난 과거시험에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던 정변임을 알아보고 합격을 취소한 것이다.

정변에 대한 일화는 453화에도 등장하는데, 사건의 배경이 이 일화와 동일하다. 그 내용은 정변이 급제하여 당일에 방방하자 畧才人을 택해 비단옷을 입히고 말 머리에서 소리치게 하며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다가 급제가 취소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의기소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은 거창하게 했다가 끝에 움츠러드는 것을 ‘정변의 정제안’이라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³¹⁾

그런데 주목해야 점은 『어우야담』에서는 합격을 취소시킨 서후의 행위를 불의한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변의 원통함이 부각되어 있는데, 『패관잡기』와 『송계만록』에서도 대사간 서후가 정변의 가문을 미천하다고 여겨 靑袍를 벗기고 내쫓았다는 부분은 동일하고, 『패관잡기』에서는 정변의 상소를 통해 원통함을 호소하여 사건이 예조로 내려졌으나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였다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³²⁾ 즉 앞서 강문우의 일화에 동일하게 서열의 과거시험

30) 『稗官雜記』(한고관외사본) 권2, 52화; 『松溪漫錄』(장서각소장) 권2, 48~49면.

31) 柳夢寅, <事會>, 『於于野談』권4. “俗談有張其始而縮其終者, 鄭蕃之呈才人也.”

32) 이들 기록의 차이는 광미라(16세기 筆記를 통해 본 중인층 지식인의 내면과 타자인식), 『고전문학연구』 57, 한국고전문학회, 2020, 196~197면)의 논의를 참고 바란다.

응시에 대한 고발을 불의한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이처럼 유몽인의 서얼허통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60화에서는 1507년(중종 2) 식년시 문과에 급제한 노비 潘碩枰(?~1540)이 국법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 재상의 반열에 올라 충신이 된 일화를 담고 있다.³³⁾ 여기에서도 유몽인의 시각은 노비의 응시 문제와 반석평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어우야담』에서 서얼이나 노비와 관련된 일화가 상당수 수록되어 있으며, 群盜와 같은 일화 등도 확인된다. 이는 16세기 후반 이후 士族 중심 신분제가 확립되기 이전 신분 체제가 混淆되는 배경에서 『어우야담』이 저술되었고, 유몽인은 서얼허통에 대해서는 사실을 고변한 이들을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면서 자신 입장을 文面化하였다. 즉 『어우야담』에서 신분에 따라 응시 자격의 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한 것이다.

조선 후기 야담에서 과거시험에 대한 비판은 주로 法制보다는 응시자의 증가에 따른 科場의 관리, 黨派 및 부정행위에 의한 선발의 공정성 등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어우야담』에서는 신분제에 따른 응시 규제와 같은 법제에 주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자신의 시각을 분명히 견지한다는 것은 사실성 측면에서 왜곡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면 자신의 추구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 및 당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³⁴⁾

33) 柳夢寅, <人倫>, 『於野談』 권1. “潘碩枰者, 宰相家奴也. 其稭也, 宰相愛其醇敏, 誨以詩書, 旅子侄同齒. 及稍長, 乃與遐鄉無子者, 匿跡力學, 不令主家通. 及長, 冒法應舉, 人莫之知也. 遂登第躋宰列, 謙恭清謹, 愛國盡臣.”

34) 신익철은 『어우야담』의 저술 동기 및 서술 방향을 실제의 사실을 直敘하지 않고 『장자』의 우언적 수법으로 표현하고자 했기에 이야기의 사실성보다는 문학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문학적 허구 또한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하였다. 과거담의 경우 사실과 진실은 길항관계가 아닌 실제의 사실성을 통해 진실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신익철, 앞의 논문, 2010, 9~10, 23~26면 참조.

3) 講經과 收券을 통해 본 응시문화

『어우야담』에는 합격자의 풍습, 응시 준비, 응시장의 예법, 합격 사례 등 과거시험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의 시각이 반영되어있어 당대 과거시험 문화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된 일화는 모두 20편으로, 이 중에서 ‘합격’이라는 주제가 가장 많다. 이는 조선에서 출세는 오직 과거시험이라는 통로를 거쳐야 했고, 선비라면 입신양명을 실현해야 했기에, 사대부층에 있어서 과거는 보편적이자 절실한 욕망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응시자 입장에서 절실함은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특정 시험을 선호하거나 기피하기도 하였다.

羅級은 남도 사람인데 생원으로 경학에 매우 능했으나 겁이 많이 講經試에 응하지 못했다. (중략) 鄭士信이 경서를 강하려고 자리에서 잠깐 사이에 청심원 두 알을 청하여 복용하더니, 다시 한 알을 청했다. 臺官이 휘장 밖에 있다가 “차가운 약제를 두 알 복용한 것도 지나친데, 세 알째 복용한다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오” 하니 정사신이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날마다 청심원을 이보다 서너 배는 복용합니다.”라 하니 대관과 시관이 모두 크게 웃었다. 생원 金絳은 말이 많고 겁도 많았다. 시험장에 들어가 시권을 대하자 ‘天’자가 생각나지 않자 친구에게 물었다. “天을 어떻게 쓰지?” 친구가 말하길 “一 아래에 大를 붙여 쓰지.” 하니 김구가 마침내 ‘臺’자를 쓰고는 아래에 ‘大’를 썼다. (중략) 朴大立은 사서삼경을 익숙하게 모두 외웠으나 겁이 많았다. 講席에 들어가면 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줄줄 외우면서 매양 달아나려 하니 시관이 군사를 시켜 불들어 잡고 외우도록 했는데, 암송을 마치고 일어나면 자리에 오줌이 흥건했다.³⁵⁾

35) 柳夢寅, <事會>, 『於野談』 권4. “羅級者, 南中人也, 爲生員, 經學甚熟, 而爲人多怯, 不能應講. (中略) 鄭士信講經, 坐經席, 須臾之頃, 請服清心元二丸, 又請一丸. 臺官在帳外曰, “飲冷劑二丸已過, 如至於三, 則必傷人.” 士信曰, “生在家, 日服清心元, 倍此三四之.” 臺官試官皆大笑. 生員金絳, 多辯又怯. 入場臨試券, 忘天字, 問其友曰, “天字何以書之?” 其友曰, “一字下著大字.” 絳遂書臺字, 其下書大字. (….) 朴大立,

인용한 글에서 등장인물은 羅級(1552~1602)·鄭士信(1558~1619)·金綵(1488~1534)·朴大立(1512~1584)으로 모두가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담아내고 있다. 이들은 종종과 선조대 문과에까지 합격한 인물로 당대 名士들이다.³⁶⁾ 이 중에서 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講經시험이 배경이다. 나급과 최대립은 사서삼경을 숙달할 정도로 경학에 능하지만, 평소 성품과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사신도 부담감으로 인해 청심원을 복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453화에도 1552년(명종 7)에 진사에 입격한 俞涵(?~?)이 사서삼경을 암송했지만, 겁이 많아 應講은 잘하지 못한 일화를 담고 있다.³⁷⁾

강경은 구술시험으로, 경서의 본문이나 주소의 몇 자를 덮고 알아맞히게 하는 帖經과 경서의 뜻을 묻는 口義가 있다.³⁸⁾ 이 중 口義를 강경이라 하는데 成宗 초부터 강경은 사서삼경 등 정해진 책의 구두와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식년시 문과 복시 초장에서 실시하였다.³⁹⁾ 그 외 나머지 시험은 모두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제술이었기에, 강경보다는 제술시험이 주를 이루자 1478년(성종 9)에는 강경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明經試가 시행되었지만, 16세기 이후에는 별시·정시 등 제술만 치르는 시험이 늘어났다.⁴⁰⁾ 결국 ‘강경과 제술 중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講製是非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誦四書三經皆熟，而其中怯。入場講席，常稱不能，猶應口而誦，每欲出走，試官使軍士扶擁使之誦，誦訖而起，溺滿席矣。”

36) 국조방목에 의하면 羅級은 1576년(선조 9) 식년시 생원에 합격하고 대과는 1585년에 합격하였다. 鄭士信은 1582년(선조 15) 식년시 문과에 합격하였고, 金綵는 1513년(중종 8)에 별시 합격하였으며, 朴大立은 1540년(중종 35) 식년시 문과에 합격하였다.

37) 柳夢寅, <事會>, 『於野談』 권4. “俞涵實學甚熟，能誦四書三經，多怯不能講。”

38) 조좌호, 『韓國科擧制度史研究』, 범우사, 1996, 136면.

39) 魚叔權, 『稗官雜記』 권2. “本國科擧，舊無講經之制，雖式年，只以兩場製述，取三十三人。其後每於式年，臨時或講或不講，而講經居多。自成廟初，始定式年講經之法，別試則無定規，或講或不講，而其講書之時亦只講經書中兩書，或取畧上者，或取粗以上者，此其大槩也。”

40) 원창에 外 5명, 앞의 책, 2014, 71~197면 참조.

세조대 이후 강경의 방법이 점차 축소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詞章 중시 풍조와도 관련되며 강경은 후대로 갈수록 그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⁴¹⁾

이 일화는 16세기가 배경인데, 이 시기에도 여전히 시험은 제술 위주였다.⁴²⁾ 이를 통해 제술에 대한 선호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경시험에 대해 기피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강경은 채점 기준이 모호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글자와 구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고⁴³⁾ 무엇보다 강석에 올라 평가를 받았기에 극도의 긴장감을 유발하였다.

이처럼 응시자 입장에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경우에 따라 수월한 시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轉流하기도 한다. 『어우야담』의 각 일화에서는 단서 조항처럼 등장인물들이 겁이 많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모두 강경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결과이며, 당대 강경이 기피되는 시험이었다는 점을 엿볼 수가 있다.

申應渠가 말했다. “선비가 과거를 볼 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권을 날이 저물어 제출하다가 군졸에게 모욕을 받게 되면 선비의 기상을 손상하는 일이다. 나는 늘 시험장에 들어가 날이 저물어 군졸이 재촉하면 즉시 시권을 접어 자루 속에 던지고 나왔다”⁴⁴⁾

인용한 글의 주요 내용은 申應渠(1553~1623)가 군졸이 試券을 재촉하는 일을 선비의 기상을 손상하는 것이라 여겼고, 자신에게 재촉하면

41) 윤선영, 「조선 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20~21면 참조.

42)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2월 17일 기사.

43) 成俔, 『慵齋叢話』 권2. “講經之法, 書字號付於四書五經, 又書字號於桂貯筒中. 舉子書所講書名而納之, 試官抽姓, 如抽天字, 則考經書所付天字, 只書大文以授. 舉子讀大文釋之, 試官講論註疏, 胥吏書通·略·粗·不四字, 以爲講籤, 各置於試官前. 一書講畢, 則胥吏持虛揲, 從下而上, 試官以次點講籤, 從多取之.”

44) 柳夢寅, <事會>, 『於于野談』 권4. “申應渠曰, “儒者應擧, 雖不得已, 若納券晚暮, 見凌辱於軍士, 則傷士氣. 每入場, 日暮, 軍士促之, 輒折試券, 投之囊中而出.”

시권을 자루 속에 던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일화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收券은 기본적으로 일몰 후 답안 작성을 불허한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고, 제한된 시간이 되면 군졸의 제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조선 후기에는 과거 제도의 폐해가 속출한다. 이 가운데 시권을 제한된 시간에 제출하는 收券은 과거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대변한다. 응시자는 시권을 다 작성하면 收券所에 내는데 이것을 呈券이라 한다. 시험 시간이 지나면 군졸이 시권을 걷어 布帳이나 명석 따위를 거두어 놓은 시권 위에 덮는다.⁴⁵⁾ 또한 수권 시간은 시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일몰 후에는 답안 작성을 불허하였다.⁴⁶⁾ 하지만 시간에 쫓겨 답안을 제대로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 시간을 엄격히 독촉하지 않았고, 仁祖 대에는 불을 밝혀 주며 끝까지 답안을 완성하도록 허가하는 기사가 확인된다.⁴⁷⁾

인용문에 등장하는 신응구는 1582년(선조 15) 식년시 생원에 입격하였으므로, 이 일화는 宣祖 연간이 배경이다. 선조 초반 알성시나 유생정시의 수권 시간은 巳時나 午時로 마감하였고 展試는 人定에 마감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試官이었던 柳希春(1513~1577)의 『眉巖日記』 1569년 7월 19일·1574년 8월 19일의 기록에 의하면, 별시 초시의 사례로 1경 3점인 인정 무렵일 때와 2경 초로 수권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인조를 거쳐 肅宗 연간에 이르면 ‘限後勿捧’의 원칙이 마련될 정도에 이르기까지 수권의 엄격성은 유지되지 않았다.⁴⁸⁾

따라서 이 무렵에도 대부분 시험에서 엄격하게 수권이 이루어지지

45) 1818년(순조 18)부터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자가 직접 제출하였다. 이성무, 앞의 책, 247면.

46)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5월 14일 기사.

47) 『인조실록』 권14, 인조 4년 9월 2일 기사.

48)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 2014, 122~125면 참조.

않았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용문을 보면, 신용구는 군졸이 응시자를 재촉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무례한 행위에도 시권을 제출하지 않는 응시자에 태도도 함께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애초 수권 시간에 따라 응시자가 원칙을 준수하였다면 군졸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군졸이 응시자를 재촉하는 것도 선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말하고 있다. 즉 수권을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당대 시험장의 행태를 모두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시험장의 풍조는 숙종과 영조 연간에 이르면 시권을 늦게 제출하는 행위를 고상한 선비의 척도라 여겨 유행처럼 따라하기 시작하였다. 애초 시권을 늦게 제출하는 이유는 차마 백지로 낼 수 없다는 자존심이었다.⁴⁹⁾ 신용구는 이를 ‘士氣’라 여긴 것이며, 선비의 자존심을 버리고 정해진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답안을 작성하는 당대 풍조를 비판하였고, 유몽인은 그의 입을 빌려 동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응시자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일어났던 일화를 중심으로 당대 응시문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중종과 선조 연간의 강경시험과 수권을 중심으로 사대부층의 실제 시험장에서 행위와 이를 통해 이 시기 과거 시험장의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었다. 경학에 능하였던 선비들이 강석에서의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통해 이 시기에도 강경은 응시자에게 상당한 부담되는 시험으로 인해 기피의 대상임을 알 수가 있었다. 여기에도 강정보다는 제술이 빈번하게 시행되었기에 응시자 입장에서 강경은 더욱 기피되는 시험이었다. 동시에 수권의 문제는 숙종과 영조 연간에 이르면 극도의 폐해를 속출하며 과거 제도의 근간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어우야담』에서는

49) 김경, 앞의 논문, 84~85면 참조.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노출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응시자와 응시자에 대한 관리자의 예우가 문제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다.

4. 나오며

『어우야담』에 담긴 일화는 실제 일어난 사건, 개인의 경험, 꾸며낸 이야기가 병존한다. 이에 張維(1587~1638)는 『어우야담』에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柳夢寅於于野談多失實)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과거담의 경우 기록으로서의 성격이 우세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文才를 그들의 科文을 통해 증명한 일화에서는 꾸며낸 이야기나 풍자적 성격보다는 사실적인 면모가 확인되었다. 특히 김인후와 김일손과 관련된 일화는 당대 기사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보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였으며 후대에까지 轉流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칠석부>와 <중흥책>은 조선후기까지 회자되었던 작품이었는데 모두 시험장에서 작성된 科文이며 이를 통해 시험정보나 試題와 같은 구체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증중·명중 연간의 신분제 따른 응시 제한과 관련된 일화에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억울함에 초점을 두면서 유몽인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 있다. 즉 法制와 관련된 일화에서는 비판 수위가 높다는 점이다. 또한 당대 분위기를 서술함으로써 이 시기의 신분제가 혼란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앞선 사실을 충실히 담고자 했던 양상과는 결을 달리하는데, 자신의 추구 및 지향하고자 가치를 명시화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성과 함께 진실성이 병존하였다.

셋째, 응시문화와 관련된 일화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이 당대 명사들이지만, 그 내용은 현전하는 기록물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등장인물들의 행위와 이를 서술한 유몽인 시각은 풍자적이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당대 시험과 관련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중종·선조 연간의 製述이 주요 시험으로 시행되었기에 講經은 더욱 기피되었고 응시자 입장에서 부담을 갖게 하는 시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收券과 같은 문제는 숙종과 영조 연간에 이르면 과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하는데, 『어우야담』에서는 수권의 문제를 원칙 수립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응시자의 풍조를 비판함으로써, 폐단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시험장 풍조를 엿볼 수가 있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어우야담』의 과거담은 야담이 지니는 이야기적 면모나 일화를 통해 자신의 시선을 반영하는 풍자적 면모가 병존하지만, 사실성이 강조되는 일화가 우세하다.

이러한 특징을 여타 야담집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분의 야담집 소재 과거담에서 작가의 일관된 주제의식을 찾기란 어렵다. 다만, 李運永(1722~1794)의 『瀨尾編』은 장에 따른 분류 방식에 의해 <科場>을 한 편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은 독보적이다. 『어우야담』 만종재본은 『영미편』과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과거담이 <學藝>와 <事會>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과거 제도에 대한 일화가 주를 이루며 유몽인 날 선 비판이 확인된다는 점은 과거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담에 측면에서 주목되는 李東允(1727~1809)의 『樸素村話』에는 50편 정도가 과거와 관련된 일화인데, 다양한 사실을 나열하는 데에 주력하였다.⁵⁰⁾ 이는 『박소촌화』뿐만 아니라 任邁(1711~1779)의 『雜記古談』과 같은 야담류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며, 자기 경험과 친인척의 간접적 경험을 수용하여 일화로 구성한 것이 주된 특성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과거담의 대부분은 부정행위에

50) 이병직, 앞의 논문, 78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면 『어우야담』에는 이러한 양상은 지엽적이고 부정행위와 관련된 일화도 1편뿐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어우야담』의 과거담은 창작된 시기 및 야담의 초기형태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지만, 당대 과거 실상을 반영하고 이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성과 함께 진실성이 강조되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어우야담』의 과거담은 후대 야담집에서 대부분이 傳述되지 않는데, 유몽인의 정치적 입장이 좀 더 고려된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조선후기의 야담집이 저자의 견문을 바탕으로 한 순수 창작물이 주를 이루는 특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어우야담』 소재 과거담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밝혔지만, 특징적 면모에 따른 분류이므로 작가의 서술의식 및 당대 정치적 배경 등은 부분적인 언급에 그치고 말았다. 조선시대 과거가 지니는 사회적 과급력을 고려했을 때 절대적인 만큼, 야담에서 과거는 양반층의 욕망과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주요 코드가 될 수 있다. 이에 특정 텍스트만으로 과거의 실상과 당대 분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躐等에 가깝다. 그러므로 추후 작업을 통해 텍스트마다 담겨 있는 내용을 간과하지 않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조선 시대 과거의 실상과 그 문화의 전모를 확인해 나아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기본 연구 자료】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용희·노영희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정환국, 『정본 한국 야담전집』 1, 보고사, 2021.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저서 및 논문】

곽미라, 「16세기 筆記를 통해 본 중인층 지식인의 내면과 타자인식」, 『고전문학연구』 57, 한국고전문화회, 2020, 196~197면.

김 경, 「事實性으로 바라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2020, 69면.

박경남, 「16·17세기 庶孽 許通 上疏文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56~61면.

박경남, 「崔鳴吉·崔錫鼎의 庶孽許通 상소와 지식인의 역할」, 『고전문학연구』 58, 한국고전문화회, 2020, 84~85면.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 2014, 122~125면.

손혜리, 「과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서얼가의 學知생성과 家學의 성립—昌寧 成氏 桑谷公派의 경우—」, 『대동한문학』 38, 대동한문학회, 2013, 178~180면.

신익철, 「『어우야담』의 서사방식과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한국학』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9면.

윤선영, 「조선 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20~21면.

원창애 외5,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242면.

이병직, 「『樸素村話』 소재 과거담의 특징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64, 2013, 78면.

이성무, 『韓國의 科擧制度』, 한국학술정보(주), 2004, 218~219면.

이재경, 「『어우야담』에 담긴 지적경험과 서사장치」, 『대동한문학』 66, 대동한문학회, 2021, 127면.

조좌호, 『韓國科擧制度史研究』, 범우사, 1996, 136면.

黃渭周, 「한국한문학 연구의 몇 가지 과제」, 『大東漢文學』 22, 大東漢文學會, 2005, 485면.

논문접수일: 2022.11.30. 심사완료일: 2022.12.24. 게재확정일: 2022.12.29.

Abstract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Eouyadam*

Kim, kyung*

This paper aims to confirm the aspect of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Eouyadam* and to reveal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To this end, after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Eouyadam* were categorized into three points, its characteristic points were stated.

First, in some anecdotes, answer papers of well-known classical scholars were used to prove their literary talent. In these anecdotes, the realistic aspects were more noticeable than the fictional elements or satirical features. And it was possible to confirm information about the test or test questions in detail through the mentioned writings of answer papers in anecdotes, which were written in the examination site.

Second, Yu Mong-in's critical perspective was definite in the anecdotes about the restriction on the exam from the class system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and King Myeongjong. In addition, by describing the atmosphere of the time, the anecdotes showed that the class system of this period was fluctuating.

Third, anecdotes about the custom of exam had a satirical salient feature. It reflects the atmosphere of the exam of the time, regardless of whether it's true or not. In particular,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trend of the examination site through the scenes of the exam's oral test and returning the answer sheets in the reign of King Jungjong and King Seonjo.

These characteristics show an intensive realism and a factuality by demonstrating clear critical minds about the exam compared to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of other Yadam collections.

Keywords: Yu Mong-in, *Eouyadam*, Yadam, the State Examination Story, Realism, Factuality.

* Research professor, Inst.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